

안동 문화 **씨** FEEL

느낌이 있는 관광 | 2023 Spring VOL.61

CONTENTS

함께하는 Andong

04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여자들이 함께하는 안동 여행



의미있는 Andong

10

한국의 열과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



맛이있는 Andong

16

명물닭갈비, 엄마밥상
월영당, 씨니 베이크 샵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안동문화필은**

안동을 여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우리 마음의 고향 안동을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안동의 문화를
전합니다.

안동이어야만 가능하고 안동이어서 가능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지역 문화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재미있는 Andong

20

여행의 고수가 안동 여행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 ①



느낌있는 Andong

26

느낌있는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세 가지 공연



알아보는 Andong

30

도산에 깃든
3대문화권 사업장



발행인 이동원 발행처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편집책임 이상문 편집위원 권재환
주소 36709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0 대표전화 054-840-3400
팩스 054-852-9230 이메일 lsm7189@kfce.or.kr
홈페이지 www.kfce.or.kr www.maskdance.com www.tourandong.com
발행일 2023년 1월(통권 제61호) 디자인 디자인판
제호(題號) 안동문화 **FEEL** 제자(題字) 장종규

* 본지의 구독은 무료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정신문화재단 허락없이 무단 복사, 전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여자들이 함께하는 안동 여행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도산 예끼마을 선성수상길

글 사사끼세이코, 고나은, 원민지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햇살 좋은 날에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4개국 대표선수가 안동시 도산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내 세계유교문화 박물관과 생태관광지, 도산 예끼마을과 선성수상길을 방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 테마파크로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국제컨벤션센터 내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되었고 지상 2층~지하 2층, 총면적 4,641㎡ 규모로 2층에 중, 소회의실 및 세계유교 문화박물관, 레스토랑, 정보카페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세계 유교문화를 나라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교문화의 흐름과 한국의 관·혼·상·제에 대한 설명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이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전시·체험 콘텐츠를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 박물관을 들어갈 땐 어디에나 있는 박물관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며 발걸음을 붙잡는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4개국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는 유교지식인.



각자 다른 환경인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나고 자랐던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레 나온 탄식.

“아!”

베트남, 중국 동생들과 나는 안동에 산 지 20년이 넘어 지금까지 수많은 안동의 문화유산의 가이드, 통역, 번역을 했지만 이처럼 국외의 문화를 비교하며 소개하고 있는 박물관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문화를 지키며 글로벌 시대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니 외국에서 온 사람이기에 더 왹지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교문화에서는 五常(仁, 義, 禮, 智, 信)이라는 덕성을 확충함으로써 五倫(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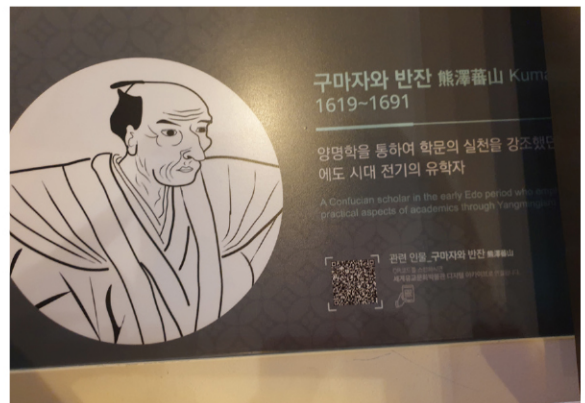




일본은 불교가 오기 전부터 유교문화가 전해져 '에도시대'에 번성했습니다.

일본에서는 '仁'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義'의 충성심이 강하게 퍼져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공공시설에서는 뛰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안되고, 새치기는 안 되고 순서대로 줄을 서야 합니다. 지진 재난 시에 싸우지 않고 큰 문제 없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모습은 유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 '무사 사회'였을 때 군주에 대한 절대복종이 변화하면서 현대에 현대까지 이어져 부모가 돌아가더라도 부모에게 가지 않고 일을 해냈다는 영웅으로 전해지는 위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한국에서는 생활 전체가 유교문화 그 자체이며 어른을 존경 존중해야 합니다. 효도가 사람의 도리다 등 일본과는 다른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 한일 사회문제 해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이나 젊은이들 사이에는 한일의 벽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강하게 남아있는 문화가 서로 플러스가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을 관람한 우리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건너편의 한국문화테마파크로 갔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한옥 호텔 숙박시설, 도자기 공예 체험·전시관, 선비숙녀 변신방, 의병전투, 활쏘기, 선비 체험, 폭탄 탈출방, 전통놀이장, 연무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비숙녀 변신방에서 조선시대 다양한 전통복식 체험을 하면서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기념사진과 함께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통놀이장은 관광객들이 조선판 보드게임 및 쌍륙놀이, 승람도놀이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날도 자녀와 함께 제기차기도 하고, 투호도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방문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체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가족과 함께 움직인다면 도시락을 준비해 가면 어떨까 합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둘러보고 나온 우리는 안동으로 나오는 길에 도산 서부리에 있는 선성현문화 단지에 들렀습니다.

최근 포토 스팟으로 뜨고 있는 예기마을과 선성수상길이 있는 곳이죠.

선성수상길은 도산구곡 중 첫 번째 물굽이인 운암곡 주변을 둘러보는 길입니다.

안동에 살면서 여러 곳을 둘러보았지만, 이곳 수상길을 오니 제 고향에 있는 베트남 하우 강 유역에 위치하고 “강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Can Tho 시의 ‘닌 끼우 보행자 다리’가 생각 났습니다.

‘닌 끼우 보행자 다리’는 하우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베트남 국가를 상징하는 부드러운 S자형 곡선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길이 약 200m, 폭 7.2m입니다.

난간 양쪽 주변에는, 또한 하이라이트이기도 한 사계절 꽃이 많이 피어있어 많은 젊은이와 커플들이 이곳을 찾아 로맨틱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연출하기에 수많은 커플의



낭만적인 데이트를 목격할 수 있어 “사랑의 다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낭만적인 베트남의 수상길 다리를 생각하고 선성수상길을 찾았는데요.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더군요. 선성현길에는 고고한 선비정신을 지키며 살았던 군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 위로 늘어진 선성수상길을 지나 한국문화 테마파크까지 수많은 선인들이 우리 앞을 걸어가며 길을 안내합니다.



선성수상길



닌 끼우 보행자 다리

선성현 문화단지 입구에서 호수로 내려가면 선성 수상길이 보입니다.

안동호 수면 위에 길이 1km, 폭 2.75m 규모로 설치된 산책로로 안동호의 풍경을 감상하며 호수 위를 걷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성수상길은 안동호의 수위 변동에 따라 뜨고 가라앉는 구조로 되어있어 수위에 상관없이 수상을 걸을 수 있는 부교입니다. 안동선비순례길 9개 코스 중 1코스에 포함됩니다.

입구를 지나면 약간의 내리막길이 있으며 그 뒤로 수상길이 이어집니다. 평탄한 길로 접어들면 드넓은 안동호와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호수 주변의 푸른 숲과 푸른 호수와 파란 하늘들이 어울려 수상길 주변 온통 푸름으로 가득합니다. 약간 굽이져 길게 이어진 수상길의 테크는 호수 위를 사뿐사뿐 걷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줍니다.

꽃이 피고 따뜻한 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걸어볼까 합니다.



* 본 글은 4개국의 필진들이 안동여행을 하며 각자 느끼며 쓴 글을 취합하여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리한 글입니다.

한국의 열과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

글 김군탁

평생을 안동에서 살아온 나는 20대 초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동을 떠나 지낸 적이 있다. 지금도 그 2년 2개월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안동을 지키는 내가, 안동을 벗어나 봐야 고작 2, 3일 길게는 일주일에 그치는 내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오랜 시간 안동을 떠나 있었을까? 2년 2개월이라는 숫자를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나는 대한민국 육군에 복무했었다. 내가 복무한 곳은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무적태풍부대…….(나머지는 국가기밀이므로 비밀로 하기로 한다.) GOP에서 밤을 새워 근무하며 외로움과 고독과 싸웠고, 별과 달과 구름과 친구가 되었다는 식상한 말은 그만두고, 군대에서 내가 12명(?)을 상대로 꼴을 넣었다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책 한 권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내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특이했던 것은, 같은 중대에 경상도 사람도 많이 없었지만, 특히 안동을 고향으로 둔 사람은 전무후무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선임병들에게 고향을 말할 때면 항상 우스갯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제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입니다.”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꼭 누군가는 “어, 안동 사람들은 다 한복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었어?, 너도 갓 쓰고 다녔냐?”하는 ‘오! 마이 갓!’을 외치고 싶은 말을 듣고는 했었다.





그때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아! 군대에서 선임병을 상대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속된 말로 개길 수도 없고……. 이러한 선임병들의 농담은 내가 상병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때는 그 농담들(어쩌면 진담일지 모를…)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 안동이라는 단어가 발음됨과 동시에 붉게 달아오르던 얼굴, 아마도 당시 안동에 대한 이미지는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이 전부였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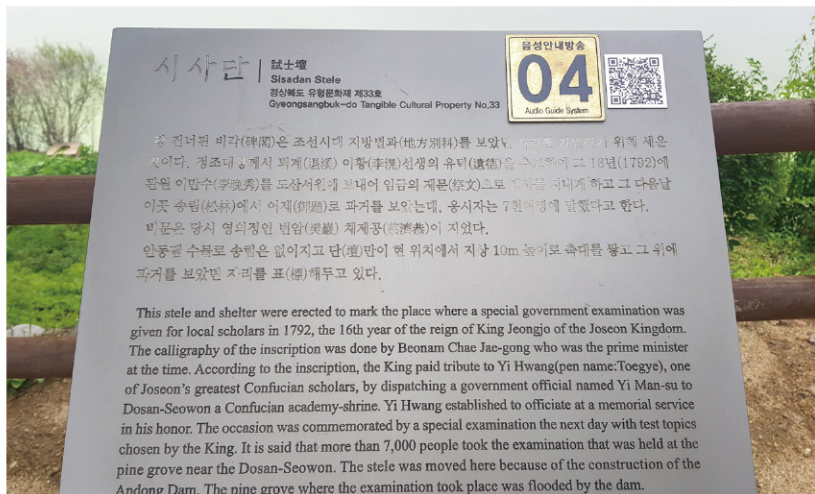


하지만 지금 다시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아마 20대 초반의 나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제 고향은 하회마을의 운치와 도산서원의 열이 살아 있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하고 큰 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하회마을이 가진 전통과 도산서원이 가진 정신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이름에 걸맞게 당당한 안동의 자량이 되었다. 안동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모든 유형·무형의 유산을 가진 전 세계의 유일한 도시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도산서원(陶山書院)은 한국의 정신을 받들어 온 성지로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교육을 담당해 온 곳이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이 설립한 도산서당이 있던 자리에,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뜻으로 사후 4년 만인 1574년에 세워졌다. 1575년에는 한석봉이 쓴 현판을 선조로부터 사액 받으며 조선의 정신과 성리학의 근본을 지키는 구심점이 되었다.

도산서원은 안동시청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도산서원을 찾아가는 길은 차 안에서조차 낙동강이 만든 자연의 품으로 뛰어드는 느낌을 만끽하기 충분하다. (누군가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던가? 차를 타고 도산서원을 찾아가는 동안 이런 경치에서 공부했다면 서울대는 거뜬히 합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차를 세우고 도산서원을 찾아들어 가는 길은 왼쪽에는 영지산이 오른쪽에는 낙동강이 품어주는 고즈넉한 길이였다. 조금 걸어가자 강 건너 단을 쌓아 올린 조그만 봉우리 위에 집 한 채가,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옮겨 놓은 것만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강 건너 아득히 손에 잡힐 것만 같은 건물은 ‘시사단(試士壇)’으로 정조 임금이 평소 흠모하던 퇴계 선생의 학덕을 기리고 지방 선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시행한 과거시험인 ‘도산별과(陶山別科)’를 치른 장소다. 과거에는 단 밑으로 송림이 펼쳐져 있었지만, 안동댐 수몰로 송림은 없어지고 단만이 10m 높이의 축대를 쌓고 남아 있다. 강 한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시사단의 모습도 절경이지만, 칠천여 명의 선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를 치르는 장대한 광경을 생각하자 그들의 기개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시사단을 지나자 도산서원이 보이기 시작했다. 산을 배경으로 웅기종기 모여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마치 성리학의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회를 여는 듯한 운치를 풍겼다. 도산서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개의 샘을 지나쳐야 하는데, 첫 번째 샘은 도산서원의 식수를 담당하던 ‘열정(冽井)’이라는 우물이다. 우물에도 이름을 붙여주고 가르침을 담으려 했던 퇴계 선생의 세심한 배려, 우물에는 지식의 샘물을 하나하나 퍼내어 마시듯 부단한 노력을 통해 심신을 수양해야 한다는 배움에 대한 퇴계 선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는 ‘몽천(蒙泉)’이라는 조그만 샘물로 몽매한 제자를 바른길로 인도한다는 퇴계 선생의 교육 철학이 담긴 샘물이다.



마지막은 ‘정우당(淨友堂)’으로 연꽃을 심어놓은 연못으로 연꽃은 진흙 속에 묻혀 살면서도 몸을 더럽히지 않고, 속은 말끔히 비고, 즐기는 남을 의지하지 않아도 곧으며, 향기는 멀수록 맑은 우리네 선비 같은 꽃이다. 도산서원 곳곳에는 매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교육이 되도록 배려한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이 담겨있었다.

세 개의 샘물을 지나면 퇴계 선생의 숨결이 느껴지는 ‘도산서당(陶山書堂)’을 마주할 수 있다. 선생이 4년에 걸쳐 짓고 몸소 거처하며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바로 그곳, 도산서원의 시작이 되었던 곳을 만날 수 있다. 거처하시던 방은 ‘완락재(玩樂齋)’라 하고, 마루는 ‘암서헌(巖栖軒)’이라 한다. 말 그대로 즐거움을 사랑하던 선생의 마음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퇴계 선생의 숨결과 흔적이 느껴지는 도산서당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조선시대 올바른 선비의 길을 배우기 위해 몰려든 유생들이 공부하던 서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면에는 서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전교당(典敎堂)’이 있는데, 전교당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던 곳으로, 서원의 첫 번째 기능인 교육을 담당하던 곳이다. 전교당의 양옆으로는 좌우 대칭을 이룬 건물들이 정갈하게 서 있는데, 유생들이 거처하던 ‘동·서재(東·西齋)’와 책을 보관하던 ‘동·서광명실(東·西光明室)’이다.

서원에 뒤편에는 서원의 또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상덕사(尙德祠)’가 있다. 상덕사는 퇴계 선생과 그의 제자인 월천 조목 선생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는 선생을 기리는 향사를 지낸다.



이외에도 서원에서 찍어낸 책의 목판본을 보관하는 ‘장판각(藏板閣)’, 향사를 지낼 때 제수를 마련해 두는 ‘전사청(典祀廳)’, 서원 관리인들의 살림집인 ‘상·하고직사(上·下庫直舍)’ 등 서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다. 또한 유물전시관이 있어 퇴계 선생의 철학관, 교육관과 생생한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서원을 둘러보며, 퇴계 선생의 교육철학을 생각하며 나는 성리학, 그것도 ‘이(理)로써 기(氣)를 다스린다’는 선생의 이기이원론적 주리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辭讓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시비지심(是非之心), 즉 선한 마음을 간직하여 바르게 살고, 모든 사물을 순리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지금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불변의 진리였다.



오래전부터 교육이란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일까, 교육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도산서원을 찾아 교육에 최선을 다했던 퇴계 이황 선생의 교육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며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위에 언급한 각각의 건물에는 현판이 붙어 있다. 퇴계 선생이 직접 쓴 글씨도 있고, 한석봉 선생이 쓰고 선조가 사액한 현판도 있다. 그리고 이 현판들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각 건물이 가진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도, 퇴계 선생이 남긴 수많은 일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서원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도산서원을 찾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동의 맛

글, 사진 이희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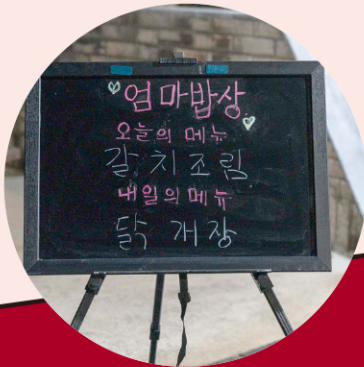


명물닭갈비

-  주소 경북 안동시 음식의길 71
-  전화번호 054-856-1232
-  휴무일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휴무

명물닭갈비는 안동 구도심 내 '음식의 거리' 웅부공원 왼쪽에 있는 닭갈비 전문점이다. 안동찜닭이 유명한 안동에서 몇 개 남지 않은 닭갈비 음식점인데 점심시간만 되면 인근 직장인들이 몰려와 문전성시를 이룬다. 테이블 위에 있는 불판에서 사장님이 닭갈비를 직접 조리해 준다. 취향에 따라 사리를 추가할 수 있고 치즈 닭갈비를 주문하면 닭갈비가 다 익어 갈 때쯤 가운데 자리에 눈꽃 치즈를 올려준다. 이때 치즈를 섞지 말고 조금씩 찍어서 먹으면 별미이다. 닭갈비를 먹으러 가서 바닥에 잘 늘어붙은 볶음밥이 빠지면 섭섭하다. 두 명이 볶음밥 1인분만 추가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 잊지 말자. 테이블 수가 많지 않아 예약 후 방문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엄마밥상

엄마밥상은 용상시장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날마다 메뉴가 바뀌는 백반정식 전문점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일반 가정집을 음식점으로 바꾼 아담한 식당이다. 날마다 바뀌는 메뉴로 갈치조림이나 동태탕이 나오기도 하는데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돼지주물럭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 변경하여 주문할 수 있다. 매번 바뀌는 반찬 구성이 좋고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집밥 그대로의 맛이라 자주 와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 부족한 반찬은 친절할 사장님에게 요청하면 바로 가져다준다. 후식으로 직접 만든 달짝지근한 식혜를 주는데 용량별로 판매도 한다. 정갈한 반찬과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주소 경북 안동시 전거리1길 108
☎️ 전화번호 054-823-2525

-  **주소** 경북 안동시 민속촌길 26
-  **전화번호** 070-8813-8613
-  **영업시간** 10:00 ~ 22:00 (Last order 21:30)
-  **휴무일** 없음



월영당

월영당은 원이 엄마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는 월영교 인근 한옥 카페이다. 고즈넉한 한옥 지붕 위에 떠 있는 보름달이 인상적이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안동의 맛과 멋을 알리고 있다. 특히 햄프씨드(대마씨앗)를 활용한 시그니처 커피 '안동대마라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햄프씨드의 고소한 맛, 크림의 달콤한 맛, 에스프레소의 씹살한 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메뉴이다. 어두운 밤이 되면 형형색색 문보드가 강물 위를 떠다니는 아름다운 월영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써니 베이크 샵은 천연발효종으로 만든 건강한 빵을 판매하는 베이크 샵이다. 천연발효종이란 다양한 천연효모를 사용한 것으로 여러 박테리아 활동으로 인한 유기산 증가로 깊고 다양한 향과 맛의 빵을 만날 수 있다. 또 소화가 잘되고 속이 편안해서 소화기관이 약한 분과 당뇨환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당일 제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아침 손님에게 신선한 빵을 제공하기 위해 새벽 일찍부터 나와 빵을 굽는다고 한다. 매일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반가운 손님에게는 아메리카노 한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바뉴, 바게트, 호밀빵 등 하드 계열의 빵은 우유나 버터가 첨가되지 않아 채식주의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린다.

써니 베이크 샵



-  주소 경북 안동시 전거리2길 111
-  전화번호 0507-1364-0969
-  영업시간 09:00~19:00 (Last order 17:00)
-  휴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여행의 고수가 안동 여행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 ①

글 김수형 지례예술촌

원고를 의뢰받고 많이 고민했다. 무엇을 쓰면 좋을까? 안동의 관광지를 다녀온 후기 같은 글은 무척 많다. 나의 글이 기존의 글들과 조금 차별화되면서 적당한 정보 전달과 알맞은 자극과 재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가장 고민했다. 안동을 여행하면서 또는 안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여행하게 될 때 도움이 되는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내가 본 여행 고수들의 기술들을 안동 여행과 함께 남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럼, 여행 고수는 어떤 사람이며 하수는 어떤 사람일까?

모든 곳에는 고수들이 있다. 일반인들이 고수들의 기술을 알아보면 감탄을 하게 되고 모르고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독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독 여행에서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는 고수고 후자는 일반 대중이라고 보면 된다. 고수들의 여행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거리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통해 얻는 것이 고수라고 해서 늘 특별히 더 많고 하수라고 해서 늘 두드러지게 더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하수라고 하여도 여행에서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힐링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고수라고 해서 더 큰 감명을 받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고수가 되면 너무 테크니컬해서 여행의 맛을 제대로 못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 고수의 기술들을 접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다.

나는 민속학과 대학원을 다녔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만 한 상태이지만 그 시절 답사를 다녔던 것도 여행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고수는 어떤가를 이야기할 때 난 늘 대학원 시절의 마을 답사가 생각난다.



마을 답사를 가보면 고수와 하수가 극명하게 나뉜다. 인문대 주차장에 모여 인원 파악을 하고 누가 선발대로 갔는지? 누가 나중에 합류하는지를 확인하고 차량에 나눠 타고 답사지로 향한다. 좁은 차에 나눠 타고는 답사지를 향한다. 차량에 따라서는 재미난 지난 이야기를 하는 답사자들도 있고 설레는 마음으로 답사지에 대해 사전 조사한 정보를 서로 나누며 가던 차량도 있었다. 차창 밖 바람을 즐기며 달렸던 그 시절이 지금에 와서는 그림기만 하다.

그렇게 답사 대상지인 마을에 도착하면 미리 정해진 조별로 나뉘어 조사를 들어간다.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조사하는 팀이 있고 마을의 물질문화에 대해서 조사하는 팀도 있고 마을의 축제나 놀이를 조사하는 팀도 있고 마을 내의 계모임 등의 조직에 대해서 조사하는

팀들도 있다. 답사를 하면 마을을 파악하기 위해 이처럼 다양하게 나뉘어서 조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해 깊이 들어가 보면 의외로 서로 연결되어 복잡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모습과 시스템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한다. 어느 마을에나 있는 뽕하디뽕한 것을 찾아내기도 하고 때론 어떤 마을에도 없는 이 마을에만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한다.

학생인 일반 답사원들은 마을을 찾아들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자신들은 어디에서 와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협조를 요청한다. 거기에 반해 교수님들을 비롯한 고수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점방부터 찾아가서 막걸리를 시켜놓고 점방 주인과 이야기를 시작한다. 손님 없던 무료한 점방에 막걸리를 시켜 먹는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장도 재미가 있다.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등의 질문이 오고

“답사차 왔습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점방, 자주 이용할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답이 돌아가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물어 익으면 답사자들은 점방 주인에게

“마을 사람 어느 분을 찾아가면 옛날이야기를 많이 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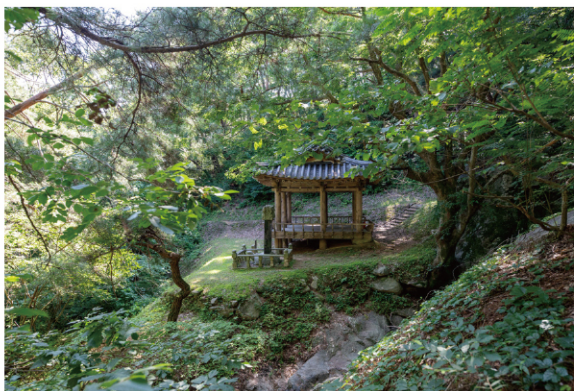
또 ‘누구의 발언이 신뢰도와 신빙성이 높은지’도 이곳에서 미리 파악하고 마을로 들어가게 된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처음부터 다르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여행이 다니며 길을 잃기도 하고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하고 중요한 소지품을 놓고 내리거나 두고 오거나 등등의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그 동네 사람인 듯이 다니는 사람도 있다. 고수와 하수는 소지품의 개수, 짐의 크기부터 차이가 난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도 저렇게 떠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최소한의 짐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도착해 숙소를 잡고 인근 시장에 가서 찻술도 사고 속옷도 사는 고수들이 있다.

그들은 편하게 다니며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하고 현지 물가도 파악해 보고 현지에서 지역민처럼 쇼핑을 하며 즐긴다. 하지만 하수는 모든 것을 집에서 바리바리 싸 가면서 고생, 오면서 고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 이제 안동을 여행해볼까 한다. 안동은 여행하는 재미가 있는 도시이다. 면적도 크고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다. 면적이 서울의 2.5배에 이르며 제주도보다 조금 작다. 이런 안동에서 여러 곳을 한 번에 보기는 어렵고 이번에는 봉정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다. 그리고 안동의 특징은 다양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많다는 것이 또 좋다. 한 시대의 유물만



많은 것보다는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많으면 그만큼 다양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시간 여행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 여행은 반드시 빠르고 편해야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여행할 때는 그 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봉정사를 간다고 했을 때 자가용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서 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역의 시티투어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의외로 장소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가 유용한 곳도 있다.

봉정사는 천년고찰이다. 즉 천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곳인데 사람들은 그 절만 훑 보고 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절에 갈 때는 꼭 차로 15에서 20분 정도 전부터 주변을 보며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유는 신라, 고려 시대에 대부분 그 지역의 토지는 해당 사찰의 소유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찰 소유의 땅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일명 사하촌인데 마을의 형성 형태를 보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살았을까를 상상할 수 있다. 여행에서 가장 큰 여행 장비는 상상력이다. 책을 통해 조금의 정보만 얻어도 그다음부터 엄청난 것들 상상해낼 수 있다. 이 또한 고수들의 향유물이다. 오래된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남기는 관광객의 한마디 "별로 볼 것 없네."

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다. 유적지가 있다면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

먹고사는 이야기, 유적지를 찾아오던 사람들의 마음, 그곳과 얽힌 사랑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묻어있겠는가? 그것을 상상력으로 하나하나 읽어내는 재미가 유적지 여행의 맛이다. 이런 것을 나는 시간 여행이라 한다. 여행은 공간 여행이자, 시간 여행이다. 내가 살던 곳에서 해당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하나의 공간 여행이다. 그런데 그곳의 거리가 1980년대 건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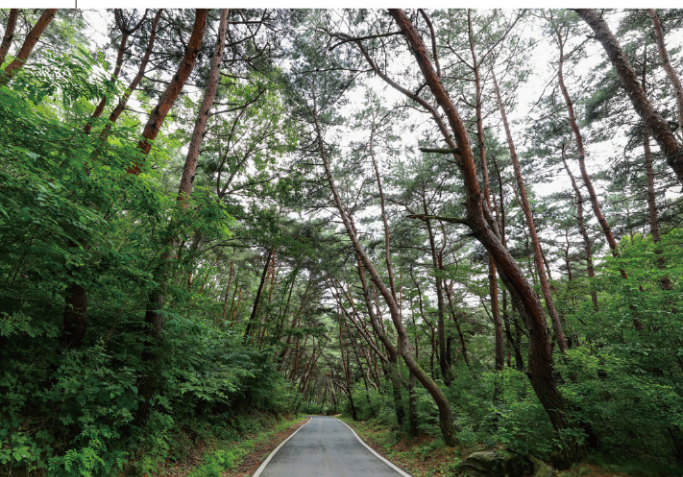
많으면 살짝 1980년대를 맞볼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조선시대 건물이나 신라 말의 석탑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도 그 시대를 맞볼 수도 있고 건물과 석탑 등의 흥망성쇠를 상상해 볼 수도 있다.

봉정사의 경우에도 지금을 차를 타고 “쑹~”하고 달려가지만 차가 없던 시대에 천년의 세월 동안 더 많은 사람이 봉정사를 찾아갔다. 제대로 된 길이 있었을까? 논둑길로, 또는 밭둑길로 다녔을까? 짐은 지게로 옮겼을까? 길가에 있던 집들은 농사 지은 뒤에 수확을 어떻게 했을까? 수레는 다녔을까? 이런저런 상상력을 동원해 추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하든 저러하든 명확한 곳들도 있다. 지금은 차로 가지만 예전에는 몇 번씩 계곡물을 만나며 건너기도 하고 따라 걷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계곡물을 보며 걷기도 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노인, 중년, 장년, 아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걸어 다녔을 것이다. 지금은 차로 다니던 길과 달리 논두렁 길로 질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절은 일반 민가와는 다르다. 옛날에는 집에 사람이 많이 와야 집이 성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랑채는 안팎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변소의 문도 안과 밖으로 만들어 길가는 나그네도 쉽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안채의 경우에는 개방성과 폐쇄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문을 닫으면 밖에서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있다.

‘민가가 이러한데 사찰은 어떠했을까?’

사람이 많이 찾아야 하는 사찰의 경우에는 숙세를 벗어난 산속에 위치해 있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야 한다. 요즘 말로 마케팅을 잘해야 산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사찰은 그 수익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렸겠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승유억불 정책으로 유학자들이 멀리하는 사찰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양반보다는 평민들을 중심에 두고 사찰을 운영한다. 그런 증거는 많은 사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봉정사 또한 그런 사찰 가운데 한 곳이다. 그림 상상을 해보자.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봉정사를 찾게 되면 손자는 할머니를 밀며 당기며 산을 올랐을 것이다. 땀도 식혀가며 산길을 오르는 모습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렇게 숲길을 올라가다가 확 넓은 곳을 만나는데 그곳 개울 너머에 일주문이 서 있다. 이런 형태도 신라, 고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감흥을 줄 수 있는 건축 구조이다. 그 개울을 건너 길을 따라가다가 고개를 들어서 보면 만세루가 눈에 들어온다. 그 느낌 또한 예사롭지 않다. 지금의 현대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품없는 고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행동 디자인은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봉정사 만세루 아래의 계단은 자연석을 깔아두었다. 다른 절들은 깎아서 만들어놓은 나뭇매끈한 돌을 깔아 절로 향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안전하게 하는 반면 봉정사는 자연석을 깔아서 사람의 눈이 발 주변으로 향하게 만들어져있다. 이는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행동 디자인이다. 행동 디자인이라 함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행동을 디자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건축물 등을 만들거나 물건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부석사의 석등처럼 오른쪽으로 비켜서 가게 한다든지 옛날 고은사의 냇물 따라 올라가는 길에서 가운데 아래를 지나며 느끼는 느낌과 그곳에서 극락전을 바로 볼 때의 경외감도 엄청났을 것이다.

봉정사 또한 그런 형태로 지어졌으며 행동 디자인이 매우 잘 구현된 대표적인 사찰이다. 만세루 아래 계단을 자연석으로 하여 시선을 아래로 두도록 하고 삼단으로 크게 나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제일 상단에 조금 못 미쳐 숨이 차는 할머니는 자연히 굽혀진 허리를 펴서 고개를 들게 되어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에는 간혹 그 자리 즈음에서 허리를 펴서 앞을 바라보게 된다. 그때 대웅전의 문이 열려있으면 대웅전 속 석가모니불과 눈이 딱하고 맞는 곳이 이곳 봉정사이다. 봉정사에는 그 밖에도 많은 행동 디자인 장치들이 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여행의 상당한 재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오래 관찰하여 그것을 예측하고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행 가운데에는 반대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자신과 타인이 함께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많다. 이 또한 고수들의 기술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식당의 단골의 시간과 여행자의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맛집은 주방에서 만들어진다.’는 말과 함께 ‘맛집은 단골이 만들어낸다.’는 말도 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주말에 장사하는 맛집 없다.’라는 말도 있다. ‘맛집은 단골이 만들어낸다.’와 ‘주말에 장사는 맛집 없다.’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평일에 꾸준히 단골이 찾아주는 곳이 맛집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평일 5일간 꾸준히 손님이 있으니 주방의 솜씨도 큰 변화 없이 성장할 수 있고 식재료의 신선도도 안정적이며 서비스 등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대신 주말에만 장사하면 식재료의 신선도도 떨어질 수 있고 손님이 일정하지

않아 음식 맛과 서비스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맛집은 단골이 만들어낸다.’이다. 이런 식당들은 단골의 시간이 있다. 아니 대부분의 식당은 단골의 시간이 있다. 바로 평일 12시부터 13시까지가 단골의 시간이다. 여행객이 이때 여행객 복장을 하고 식당을 찾으면 환대받기 어려울 수 있다.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단골들을 위해서 시간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뜨내기손님인 여행자에게까지 최선을 못 하는 곳들이 있다. 이런 시간에 맛집을 찾아가서 좋지 않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여행 하수들이다. 단골들의 시간이 있다면 여행자들의 시간이 있다. 13시에서 2시 사이에 맛집을 찾아가면 단골들이 빠져나간 뒤가 되므로 식당 입장에서 여유가 생기고 식당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에 오는 손님은 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서비스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여행을 떠나 요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다니면 재미도 좋고 맛집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얼마

전 우리 부부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맛집을 2시가 넘은 시간에 찾아갔다. 다행히 연세가 있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이라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다. 음식도 맛이 있었지만, 그곳에 와서 식당을 하게 된 이야기를 세세히 기분 좋게 들을 수가 있었다. 부산에 가서 식당을 했던 이야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하던 차에 정보지에 나온 식당 매대 정보를 보고 현 위치에 찾아왔고

“실력이 이렇게 좋으신데 시내에서 하시거나 타지에서 하시지 왜 여기서 하세요?” 라고 여쭙보니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되었고 여긴 은퇴를 앞두고 하는 곳이며 지금은 두 분이 운영하기 적당한 규모라서 딱 좋다고 답을 했다. 그 후로도 간혹 바쁜 시간에 그 식당을 찾아가는데 너무 주방이 바빠서 다른 요리가 먹고 싶어도 빨리 되는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며 다음엔 단골의 시간을 피해서 와야겠다고 다짐했다.





느낌 있는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세 가지 공연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진행된 미디어아트 극 「히든카드」, 열혈 청춘들의 성장기 「난리법석 버꾸통」, 그리고 스테이션 레트로 로맨스 뮤지컬 「안동역에서」는 3가지 테마를 주제로 다양한 관객층을 노리며 매주 상설 공연이 진행되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진행하는 상설 공연이야말로 지역관광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객이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니면 볼 수 없기에 관광객은 안동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지난해에 받은 다양한 피드백을 토대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공연이 매주 총 210회 상설 공연으로 진행된다.

오직 안동에서만 볼 수 있는 주제와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무대 기술을 활용해 미래문화재단에서 제작한 3가지 공연은 지역 공연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분야에 유의미한 성과를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미디어아트 공연

히든카드[Hidden Card]

그 첫 번째 선발 주자는 미디어아트 극 「히든카드」이다. 미디어아트 전시는 특별전시 형태로 종종 접해볼 수 있지만, 미디어아트와 공연을 결합한 상설 공연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히든카드」는 퇴계 이황이 집필한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첫 번째 장이자 성리학의 우주 탄생 원리인 태극도를 주제로 하고 있다. 얼핏 고리타분한 유교관을 내세우리라 오해할 수 있지만, 3D 홀로그램 기술과 프로젝터 맵핑 기술, 그리고 세련된 음향 디자인 기술을 활용하여 현대적 무대 기술이 공연장에 가득한 공연이다. 약간은 어리숙하지만, 착한 도둑 남매들이 도산서원에 숨겨진 보물을 훔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적극적인 관객 소통으로 무대와 관객석 사이의 제4의 벽을 허무는 공연이다. 상영시간 또한 35분으로 길지 않아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방문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웃으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미디어아트 공연 히든카드는 설화극장에서 3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약 35분간 펼쳐진다.

홀로그램 영상과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를 만나볼 기회가 될 것이다.



공연 안내

- **공연 일자** 3월 29일 ~ 12월 22일
- **공연 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공연 시간** 14:00
- **상영 시간** 35분
- **관람료**
 - 정가 10,000원
 - 청소년·아동 5,000원 / 안동시민 5,000원 / 단체 할인 7,000원
 - 한국문화테마파크 입장권 별도
- **공연 장소** 한국문화테마파크 설화극장

안동선비고등학교에서 펼쳐지는
청소년들의 열혈성장기

난리법석 버꾸통

두 번째 주자는 열혈 청춘들의 성장기 「난리법석 버꾸통」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한국 공연인 「난타」 그리고 「점프」와 마찬가지로 넌버벌(Non- Verbal, 비언어극) 장르의 공연이다. 22년 진행한 공연에서, 외국인 단체 관람객과 개별 외국인 관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호평을 받은 공연으로, 기계체조, 액션, 케이팝 군무, 팬터마임 등 화려한 눈요기와 밝은 시나리오로 오직 관객들의 입에 웃음꽃이 걸리게 하도록 최선을 다한 공연이라 할 수 있다. '안동 선비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각자의 무술을 갈고닦는 5명의 열혈 청춘이 겪게 되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그들의 꿈과 성장 스토리를 시종일관 웃음기 가득한 분위기로 휘몰아치는 공연이다.

“난리법석 버꾸통” 공연은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극 극장에서는 3월 25일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진행된다. 학생이 펼치는 꿈에 대한 이야기와 극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안동의 이야기와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택견을 연마하는 ‘태권’을 통해서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공연 안내

- 공연 일자 3월 25일 ~ 8월 27일
- 공연 요일 토요일, 일요일
- 공연 시간 14:00
- 상영 시간 60분
- 관 람 료
 - 정자가 20,000원
 - 청소년·아동 10,000원 / 안동시민 10,000원
 - 단체 할인 14,000원
 - 한국문화테마파크 입장권 별도
- 공연 장소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극 공연장

안동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애절한 스테이션 로맨스 가요 뮤지컬

안동역에서



공연 안내

- 공연 일자 9월 2일 ~ 12월 24일
- 공연 요일 토요일, 일요일
- 공연 시간 14:00
- 상영 시간 70분
- 관람료
 - 정상가 20,000원
 - 청소년·아동 10,000원 / 안동시민 10,000원
 - 단체 할인 14,000원
 - 한국문화테마파크 입장권 별도
- 공연 장소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극 공연장

마지막 공연이자 '한국문화테마파크'의 최대 이벤트는 「안동역에서」 공연이다. '스테이션 레트로 로맨스 뮤지컬'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주장하는 이 공연은, 십여 명의 배우들의 화려한 춤과 노래 그리고 애절한 첫사랑의 추억을 울부짖는 '한국문화테마파크'의 회심의 일격이다. 22년 진행한 공연에서는 매 공연 관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박수갈채로 한겨울에 진행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이 후끈한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안동역에서」 공연은 1970년대 안동을 배경으로, 그 시대 안동의 청년 '차선남'과 '김선녀'는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을 키워나간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두 사람은 이어지지 못하고... 첫눈 오는 날 야반도주를 결심한 '차선남'과 '김선녀'. 두 사람의 간절한 언약식과 '차선남'을 짝사랑하는 '지수연'의 애절한 연가! 과연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역에서'는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인 안동역을 배경으로 그 시대 안동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자연스러운 노래 가사의 스토리라인으로 풀어냈다. 신파극, 창극의 형식이 아닌 현대적인 감각의 군무와 대중가요를 사용하여 스테이션 로맨스 가요 뮤지컬이란 장르를 표창하고 있다.

“안동역에서” 공연은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극 극장에서 9월 2일을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진행된다.

* 공연에 대한 예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단체 문의는 미래문화재단에서 진행한다.

공연, 단체 관람 문의 미래문화재단 공연사업팀
☎ 054-841-2433

도산에 깃든 3대문화권 사업장

오는 길은 힐링이고, 가는 길은 울림이다

글 이다슬 (주)안동테마파크 사업운영실장



월영교에서 도산서원 방면 35번 국도를 따라 한적한 시골길을 30분 남짓 가다 보면 컨벤션센터와 테마파크, 박물관이 숲속의 정원처럼 한눈에 펼쳐진다. 진입로에서 보면 좌측에는 현대적 건물인 컨벤션센터, 우측에는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조선시대 성곽이 어우러져 있다.

2022년 8월,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3대문화권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안동호를 품은 3대문화권 사업장은 전체 763,570㎡ (약 20만평) 부지에 지역 MICE산업의 핵심 인프라시설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한국의 역사·유교·문화·예술, 놀이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세계유교문화권의 문명·정신·철학·사상·역사에 대한 지식정보를 담은 세계유교문화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회의, 학술회의, 전시, 행사 개최 및 전시·문화 체험시설, 어드벤처시설, 상설공연장, 체험공방, 저잣거리 등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국내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체류형 복합 MICE·문화·관광단지이다.

“안동에 컨벤션센터가 생겼어요?”

자주 듣는 말이다.

컨벤션센터는 보통 특급호텔, 쇼핑센터 등이 인접한 상업지구나 도심,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 컨벤션센터가 대체로 그렇다. 안동은 MICE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을 듯한 유교와 선비의 도시 이미지가 강하고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고택, 종가문화 등에 익숙한 타 지역 사람들, 특히 행사를 주최하고 행사에 참가를 해왔던 사람들과 넓은 도로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에게겐 생소할 만하다.

하지만 안동은 이미 MICE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UNESCO 세계문화유산도시, 세계역사도시연맹(LHC) 회원도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회원도시 등 국제교류 네트워크와 약 90여개 평생교육기관을 보유한 평생학습도시, 또한 국내 최대 소장 국학자료를 바탕으로 전통 기록유산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있고, 인류사회에 적합한 보편적 인문가치의 비전을 제시하는, 올해 10회째를 맞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전경



B1 컨벤션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안동, 그 속에 자연과 벗 삼은 국제컨벤션센터

이제 안동이 향후 국제컨벤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시설을 살펴보자. 먼저 건물 외관은 전면이 유리로 마감되고, 일자로 뻗은 구조에 사발모양(박물관)이 조화롭게 구성된 현대적 건물로 국내 어느 컨벤션센터와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다. (안동이라 기와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산이다.)

지하1층(누가 봐도 1층이지만 건축 구조상 지하1층이다)에는 최대 2,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대회의실) 및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노블레스홀(로비)이 있고,



2F 중회의실



2F 야외광장



B1 시습당



3F 옥상정원

2층에는 자연 채광과 경관을 품은 700명 동시 수용 가능한 13개의 중·소 회의실과 VIP보드룸이 마련되어 있다. 2층 로비와 연결되고 만찬과 이벤트 진행이 가능한 야외광장, 200명 수용 가능한 뷔페식 레스토랑이 마련되어 있고, 3층에는 안동호와 테마파크를 한번에 조망할 수 있는 옥상정원이 있다. 그리고 지하1층 노블레스홀과 연결된 박물관 내부에는 50~60명 수용 가능한 별도의 스튜디오(시습당)가 있어 MICE 행사 시 각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기획과 연출이 가능하다.



산대극장

그리고 컨벤션센터에서 도보 이동 가능한 맞은편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산대극장, 연무광장, 저잣거리에서도 만찬 및 기타 이벤트 진행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작년 2022년에 개최된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제16회 안동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UNESCO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9차 총회, 국제퇴계학회 등 25건의 행사 개최로 시설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이 주변 자연환경과 시설에 만족해했다는 후문이다.



연무광장



테마파크 저잣거리

그리고 안동은 축제 및 문화행사가 연중 다수 개최되고 많은 유적과 문화유산, 유명 관광지, 다채로운 음식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컨벤션센터 인근에는 관광지인 예끼마을, 선성현문화단지(안동호 수상길), 군자마을이 있고 컨벤션센터를 나와 태백 방향으로 차를 몰면 5분 거리에 도산서원이 있다.

퇴계 이황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했던 도산서원에서 청량산 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미술랭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별점을 매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연결된다. 도산서원에서 봉화를 지나 태백으로 가는 35번 국도 약 75km 구간이 그 길이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옆에 250실 규모의 한옥호텔 건립도 계획 중에 있고 인근 고택에서의 숙박도 가능하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MICE 행사 개최지로서 손색이 없다.



인문가치포럼

유교문화의 글로벌 허브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이제 컨벤션센터 2층으로 가서 정보카페를 지나 세계유교문화박물관으로 들어가 보자.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 유교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다양한 디지털 체험 콘텐츠로 구성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유교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조성되었다.

유교의 기본 경전으로 일컫는 사서(四書)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각 주요 명구가 적힌 아트월 입구를 지나면 높이 18미터의 미디어타워에서 연출되는 화려한 영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 라키비움(Larchiveum : Library+ Archive+Museum) 개념의 디지털 체험형 박물관으로 3개의 전시관(유교정신관, 유교문명관, 유교미래관)이 나선형으로 이어져 있다. 박물관 내 전체 약 90미터 길이로 조성된 역사타임라인에는 전 세계 약 4천여건의 유교지식정보 관련 아카이브가 수록되어 있어 시대별, 나라별 인물, 저서, 사진, 유물 및 유적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유교정신관



유교문명관



유교미래관



광명각

유교정신관은 유교의 가르침과 발전과정, 역사적 사건, 주요 사상가들의 정신과 학문적 성과를 다양한 기법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유교문명관에서는 성리학을 기본이념으로 건국한 조선 왕조를 중심으로 국가제도와 사회규범, 개인의 일상 문화에 이르는 유교문화를 접할 수 있다. 유교미래관은 환경, 복지, 성평등, 교육 등 시대적 화두를 살펴보고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보편적 인문가치가 미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공감해 보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박물관에는 도산서원의 광명실(光明室, 성현의 말씀이 담긴 서책을 보관하던 곳)을 모티브로 조성된 광명각(光明閣)이 있다. 인문학과 역사, 철학 관련 4천여 권의 전문 교양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방송촬영 장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역사, 철학, 사상, 인문학을 전공했거나 평소 관심이 많았다면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을 꼭 한번 둘러보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어린이전시관

그리고 지하 2층에는 키즈카페 형식의 “지혜의 보물창고 유-누리 어린이전시관”도 운영 중이다.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구성되어 놀이와 함께 천자문을 배우고 학, 용, 사슴 등 친근한 동물들과 예절을 배우고 동시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책과 놀이를 동시에 접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높다. 물론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지만.



남문

16세기 산성마을로의 시간여행 한국문화테마파크

컨벤션센터 정문을 나와 맞은 편을 바라보면 조선시대 성곽이 보이는데 그 옆에 보이는 한옥 몇 채가 테마파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는 한국문화테마파크의 입구다.

성곽의 문을 열고 도자기공방, 남문역참, 봉수대를 지나 의병상과 사진 찍으며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16세기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를 배경으로 조성된 산성마을이 펼쳐진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복합 문화체험시설로 안동의 역사 및 유교문화, 민속문화, 예술, 놀이를 인터랙티브 게임과 여러 가지 체험코스로 즐길 수 있다.



산성마을



의병체험관



선비숙녀변신방

먼저 **의병체험관**은 임진왜란 진주성전투를 모티브로 한 몰입형 3D 전투체험관으로 3면으로 구성된 높이 약 5m, 총 길이 약 30m 대형 스크린과 웅장하고 비장한 효과음이 관람객을 압도한다. 관람객은 임진왜란 시 나라를 지켰던 의병이 되어 조선시대 대표 무기인 천자총통, 비격진천뢰, 활, 석전(돌)을 활용하여 약 30분간 3D 전투체험을 할 수 있다. 전투체험 후 국궁체험과 조선시대의 감옥 및 다양한 형구를 체험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다양한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선비숙녀변신방에서는 장군복, 선비복, 관복, 규수복 등 다양한 의복과 소품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다양하게 꾸며볼 수 있다. 남녀노소 체험 가능하며 내부에 마련된 스튜디오 촬영과 테마파크를 거닐며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SNS용 사진 맛집이다.

그리고 안동의 대표적 선비인 퇴계 이황, 농암 이현보, 월천 조목 선생의 경, 효, 충 정신을 인터랙티브 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선비체험관**, 정해진 시간 내 비격진천뢰를 조립하여 탈출하는 **폭탄탈출방**, **전통놀이장** 등이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실내공연장 2곳에는 3월부터 상설공연(유료)이 진행된다.

전통국공연장에는 3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코믹, 마살아츠, K-POP댄스를 활용한 난리벌퍼포먼스인 “난리법석 버꾸통”, 9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매주 토, 일 오후 2시부터 스테이션 로맨스 음악극으로 고향인 안동을 찾은 남자의 추억을 담은 “안동역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설화극장에서는 3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주 수, 목,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미디어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으로 퇴계의 보물을 훔치려는 도둑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려낸 “히든카드” 공연이 열린다.

그리고 **저잣거리**에는 전통/로컬 음식점, 지역 특산물 판매소, 카페테리아, 전통문화 아카데미(야생화 미니쿠션 만들기 등) 공방이 운영되고 **향촌**에서는 문화상점을 비롯한 각 체험공방(식물공예, 꽃바구니 만들기, 가죽공예, 팝아트 등)이 운영된다.



난리법석 버꾸통



안동역에서



히든카드

종루광장에서는 시즌별로 산성마을 이벤트가 연중 개최된다. 산성마을의 설날을 시작으로 3·1절 만세운동,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리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별도 체험 이벤트로 테마파크를 찾는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무대에서는 액티비티 어드벤처 체험시설로 지정 장비를 착용하고 해전, 육전, 미로전, 공성전을 체험할 수 있다.

자연을 벗삼은 한국문화테마파크는 그 자체로도 경관이 아름답고 선비순례길, 탐방로와도 이어져 있어 가족, 친구, 연인들의 산책코스로도 좋다. 또한 연무대와 산성마을 체험시설을 활용한 기업 및 단체 “팀 리빌딩 프로그램”도 곧 운영할 계획이다.

도산에 깃든 봄.

도산으로 오는 길에 신선한 힐링을 느끼고, 돌아갈 때의 묵직한 울림을 느껴볼 때다.



산성마을의 크리스마스



산성마을의 설날



홈페이지 : www.andong.go.kr/adco (테마파크, 박물관 홈페이지 연결됨)

- 한국문화테마파크 입장료 : 일반 5,000원 / 20명 이상 단체 4,000원 ※ 선비숙녀변신방 및 의병체험관 : 각 10,000원 / 1인
-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입장료 : 일반 3,000원 / 20명 이상 단체 2,500원 ※ 테마파크 및 박물관 입장료에 한해 안동시민 50% 할인



4년만에 다시 찾아온

안동벚꽃축제

우리 함께 '벚꽃길만 걸어요!'



화려한 조명이 벚꽃 위에 수놓은

무지개 꽃 밤(Rainbow Flower Night)

MZ 세대여 모여라! 그대들의 위한 공간

젊음의 전시(Exhibition of Youth)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꽃길 거리(Flower Street)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

꽃길 버스킹(Flower Busking)



■ 안동벚꽃축제 공연일정표

	14시	14시 30분	15시	15시 30분	16시	16시 30분	17시	17시 30분	18시	18시 30분	19시	19시 30분	20시	20시 30분	21시
4.7. (금)											벚꽃 조명쇼	팝페라 (이상민, 강유경)	벚꽃 조명 쇼	김이난 버스킹	벚꽃 조명쇼
4.8. (토)	버블 풍선쇼	나리마칭 밴드	뮤지컬 공연 (계명대 뮤지컬학과)			마임 공연		버블 풍선쇼	마임 공연	뮤지컬 공연 (버구통)		안동 팝스 밴드		박봉순 프로젝트	
4.9. (일)	현악 4중주		조선 마술패		클라 리넷 합주		퓨전 국악		비보 브라스			무용& 가락& 대금		팝페라 (디아만떼)	

※ 상기 일정 및 공연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안동 벚꽃 축제

벚꽃길만 걸어요

2023.4.5.수-4.9.일

낙동강변 벚꽃길&탈춤공원 일원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초대합니다!

*We invite you to Andong City: The Capital of Korean Ethical Philosophy,
inheriting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오시는 길

버스

서울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안동
부산 부산동부터미널(노포동) ▶ 안동
대구 동대구터미널 ▶ 안동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 안동

기차

서울 청량리역 ▶ 안동
부산 부전역 ▶ 안동
대구 동대구역 ▶ 안동

 blog.naver.com/aftf

 [instagram.com/andongtour](https://www.instagram.com/andongtour)

 www.facebook.com/tourandong

 '안동노닐기' 검색